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율법주의 제목 : 처음 사랑을 찾으라 성경: 요한계시록
2장1-7절

1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6 오직 너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2:1-7)

요한계시록은 종말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분명히 종말과 심판은 있으며,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며, 모든 성도들이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들이다.

그런데, 계시록임에도 불구하고 묵시록이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그 내용을 연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묵시록이라는 역사적 정황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과 신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해 왔으니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1-3장까지는 묵시록의 성격 보다는 편지글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해

석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고, 평신도들도 평이하게 읽고 그 뜻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우선 1-3장까지만 읽고 해석하고 그대로 실천해도 종말론이나 심판에 대한 초기 대응은 하는 셈이 된다.

오늘은 에베소교회를 향한 예언적 메시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에베소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교회이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존재한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적이지 않고 현재진행형이며, 미래완성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게, 그리고 택하신 성도들에게 먼저 실행된다. 왜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교회를 선택하셨고, 교회를 모범으로 삼고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변질되면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치리하신다. 그러므로 교회에게 있어서 심판은 즉각적인 현재진행형이다.

물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하신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은 바로 현재진행형이 된다.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데, 언제든지 회개하면 타들어가는 심판의 불을 꺼트리시기 때문이다.

에베소교회는 훌륭한 교회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1. 행위
2. 수고
3. 인내
4. 철저함
5. 악한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함
6. 의지가 투철하고 열정적임

-그런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 율법주의적 함정에 빠질 우려가 크다.

-한국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음. 한국 기독교 율법주의. 오늘날 지탄의 대상이기도 하다.

왜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까?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2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리고,

6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콜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도움이 되는 구절이 있는데

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엡4:2)

-사도 바울도 에베소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동일한 권면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다.

-사탄은 우리가 교리나 행위, 윤리적인 문제로 다투기를 원한다. 그래야 교회가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수같이 여기며, 서로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정죄하면서도 자신은 결코 잘못하지 않았다는 독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죄를 하나님의 일로 여기며 그에게 행하는 테러를 정당하게 여긴다. 왜냐면 마귀를 향한 테러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죄에 대해서 분노해서도 아니되며, 용납해서도 아니되며, 항상 깨어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한다. 거룩한 교회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 교회라기보다는 죄인들을 위해서 영적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건강하여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교회이다.

물론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죄인들을 무작정 몇 년이 지나도록 방치하라는 것은 아니다. 정죄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어서 돌이키도록 돕고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는 내어 쫓아야 할 것이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처절하게 싸우게 하든지, 이간질하거나, 약점을 잡고 늘어지거나, 타협하거나, 거짓으로 회개한 척 하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 계략을 사용할 것이나 그 모든 마귀적인 일들에 대해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하신다.

그러나 에베소교회는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그들의 거짓된 부분을 시험하고 (다분히 계략적) 그의 거짓된 부분을 드러내어(폭로, 까발림, 정죄) 교회에서 쫓아내었다.(선동적, 공산주의적)

대부분의 교회에서 여기까지는 잘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는데, 그런 와중에서 너무 무리하고 악하게 행동함으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악과 싸우되 악으로 악을 이겨내는 것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마귀에게 주도권을 내어준 격이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마녀사냥터가 되어서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된다.

책망

1. 처음 사랑을 버렸다.

물론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은 칭찬을 들을만한 일이다. 결국은 이들을 내어 쫓았으니 잘 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그들이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던 것인데, 하나님은 율법주의자들 보다 사랑과 진리와 선행으로 악을 이겨내기 원하셨던 것이다.

율법주의자들과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니콜라당이다. 요즘은 구원과 이단들이 여기에 속한다.

전설에 의하면 초대교회 일곱집사 중 한 사람이 다시금 유대교로 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이들이 복음을 강조하면서 모든 율법을 배격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교훈을 퍼뜨렸다고 한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 이들은 영혼이 구원을 받으며, 육체는 어차피 구원을 받지 못하므로 죄를 범해도 상관없다고 가르쳤다.

이들은 무율법주의이며 무도덕주의자들이 되었다. 그들의 가르침은, 첫째, 율법의 때는 지났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다.

둘째, 육신은 악이요 영만이 선하므로 육신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 관계없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행하든 해 받음이 없다.

아무튼, 에베소교회에서는 율법주의자들과 니콜라당이 극과 극처럼 대립하다가 싸움이 일어났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이겨서 니콜라당을 교회에서 몰아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싸우는 와중에 교회가 분열되고 싸움 그 자체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초신자들이 시험에 들거나, 또는 싸우는 일이 습관화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거나 하는 것들을 싫어하신다. 왜냐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마귀가 교회를 휘방하는 결과요, 도구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죄를 방치하거나, 죄와 타협하는 것을 더 싫어하신다. 그렇다고 마귀적인 방법으로 죄와 싸우는 것도 싫어하신다. 교회는 항상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행위가 더러워도 된다는 뜻도 아니다. 행위가 더럽다는 것은 심판을 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진리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이 나오는 것이지, 행실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이 진리라는 뜻이 아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라면 죄인을 정죄하는 모습으로가 아닌,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고, 마귀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자비와 양선을 선택할 것이다.

즉, 율법주의 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선택하는 것이다.

(기독교적 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운 거룩한 행실; 주일성수, 십일조, 전도, 봉사, 선교, 성전건축, 새벽기도회, 말씀읽기 등등 -이런 행실들이 어떻게 하면 율법주의가 되는가? 성령의 충만으로 행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기복적이었던면 위험하다. 자랑이 된다면 위험하다. 정죄가 된다면 위험하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으로 행할 수 있는가? 기쁨으로 행하면,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행하고 두려움으로 행하면, 감동으로 행하면, 순종으로 행하면 성령의 충만으로 행하는 것이다.)

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운 거룩한 행실 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더 사모하라. 사랑, 평안,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순종, 기쁨의 열매가 항상 내 삶에 있는가를 점검하라. 그러면 쉽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사랑이다. 처음사랑이란 성령으로 충만할 때의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종말론 제목: 어린 양 같은 짐승 말씀: 계시록 13장

1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2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3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4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5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6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9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1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12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

처가 나은 자니라

13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 (계13:1-18)